

## 애착성향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온/오프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이 서 현 양 은 주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인터넷의 등장은 대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새로운 장을 제공해주었다. 본 연구는 애착성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오프라인 자기개방과 온라인 자기개방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애착성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을 매개로 하여 관계의 질에 이르는 경로모형을 가정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애착불안 성향이 자기개방 행동을 촉진하는 특성으로 작용하며, 애착회피 성향은 자기개방을 억제하는 성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더해 오프라인에서의 자기개방 행동과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눈덩이 표집법으로 전국에서 모집된 총 1051명(남자 468명, 여자 564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자기보고식 애착 척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기개방 척도, 관계의 질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성향이 자기개방을 매개하여 관계의 질에 이르는 경로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모두 부적으로 나타났으나 애착불안의 경우에는 두 경로가 모두 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불안에서 온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오프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로계수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오프라인 자기개방과 온라인 자기개방은 상호작용하여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애착불안, 애착회피, 온라인, 오프라인, 자기개방, 관계의 질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30-B00240).

† 교신저자: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E-mail: junghye@korea.ac.kr

현대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사회 공간과 마주하게 되었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공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사람과 만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 사용 양상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에서 인터넷 사용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동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수호, 2011; Gross, 2004). 또한 지난 십 년 간의 축적된 연구 결과들은 인터넷을 사용한 의사소통이 이용자들의 삶에 중요한 영역이 되었음을 시사한다(Gemmill & Peterson, 2006; Subrahmanyam & Greenfield, 2008). 이처럼 온라인 공간은 기존의 삶의 영역, 특히 전통적인 대인관계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사회활동의 장으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장면에서 행해졌던 대인관계 연구들이 온라인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인관계 연구들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관계를 변화시키는 대인관계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대인관계 행동을 형성하는지 등에 주목해왔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대인관계의 장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연구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 불안(Valkenburg & Peter, 2007b), 성격특성(Amichai-Hamburger, Wainapel, & Fox, 2002; Kraut et al., 2002), 외로움(Morahan-Martin & Schumacher, 2003)과 같은 개인차특성은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개인의 행동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Valkenburg & Peter, 2007b)이나 관계유지행동(Rabby, 2007) 또는 상대에게 칭찬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

(Wright, 2004)과 같은 대인관계 행동이 관계의 질이나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지가 탐구되었다. 그러나 인간 행동의 근간을 형성하는 수많은 개인 변인 중에 여전히 제한적인 개인변인만이 연구되었으며,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 행동이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 행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즉,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에서는 주로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행동을 오프라인 대인관계 행동과 별개로 연구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관계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다르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행동이 각각 혹은 함께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폭넓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애착성향은 인간행동, 특히 대인관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이며(Bowlby, 1976)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애착성향이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해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9; Baumeister & Leary, 1995; Mikulincer, 1998).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대인관계 상황, 즉 면대면 의사소통 상황만을 살펴봤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애착성향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애착성향이 온라인에서는 관계 행동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며, 이것이 관계의 질에 어떤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대인관계 행동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행동 중 자기개방(self-disclosure)이 친밀감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기반하여(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 Manne et al., 2004; Sprecher & Hendrick, 2004; 박성복 & 황하성, 2007) 의사소통 행동 중 자기개방 행동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애착과 자기개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안정애착과 불안애착의 경우 자기개방을 높이고 회피애착의 경우 자기개방을 낮추는 경향이 있

음을 제시했다(Keelan, Dion, & Dion, 1998; Mikulincer & Nachshon, 1991; 박선주, 2010). 본 연구에서는 애착성향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이 온라인에서도 반복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 활동은 기존 면대면 관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들(Gross, 2004; Subrahmanyam, Reich, Waechter, & Espinoza, 2008; Valkenburg & Peter, 2007a, 2007b)을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면대면 대인관계와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리라 가정했다.

Bowlby(1953, 1976)는 애착이 생애 초기에 형성되고 전 생애에 걸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제안했다. 여기서 애착이란 생득적인 심리생물학적 시스템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협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타인(예를 들면, 부모)과의 근접성을 유지하게 만든다. 생의 초기부터 시작된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개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애착유형을 나누는 초기의 연구에서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 (1979)는 아동이 낯선 상황에서 애착대상과 분리되었을 때 반응을 바탕으로 애착을 안정(secure), 회피(avoidant), 불안-양가(anxious-ambivalent)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Brennan, Clark과 Shaver (1998)은 애착을 불안과 회피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다. 애착 회피는 관계에 대한 불신과 의존성으로 인해 독립성이 침해될까 두려워하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든다. 반면 애착 불안은 애착 대상이 필요할 때 곁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애착 대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애착성향에 따라 애착대상에게 느끼는 감정과 관계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는 것은 애착성향이 대인관계의 동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 관계에서의 행동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계의 질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이어리 기법을 사용해 애착성향에 따른 사회 활동의 차이를 본 Tidwell, Reis와 Shaver(1996)의 연구는 애착성향(안정, 불안, 회피)에 따라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 긍정/부정 정서, 상대에 따라 접촉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회피애착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애착이나 불안애착에 비해 관계에서 친밀감을 더 적게 경험하고, 관계를 촉진하려는 행동(예를 들면, 자기개방)을 더 적게 했으며 높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의 경우 회피애착에 비해 관계에서 더 높은 긍정 정서와 친밀감을 경험했으며, 관계 촉진 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기복이 회피애착과 안정애착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불안애착인 사람들이 상대가 주는 단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처럼 애착성향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기와 그 안에서 하는 행동과 경험이 달라지는 것은 관계의 질에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애착성향이 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Keelan et al., 1998; Stackert & Bursik, 2003). 지금까지 축적된 선행연구들은 애착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애착성향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관계 행동, 즉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정하고, 애착성향이 자기개방을 거쳐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Derlega와 Grzelak(1979)는 자기개방을 “개인적인 상태, 특성, 과거의 사건, 미래의 계획 등을 포함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p.152)라고 정의했다. 자기개방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에게 밝히는 것이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시사한다(Altman & Taylor,

1973; Reis & Shaver, 1988). Reis와 Shaver(1988)가 제안한 친밀감 모형에서도 자기개방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데, 이 모형에 따르면 관계에서 친밀감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자신의 정보, 감정, 생각, 상대에 대한 느낌을 표현(자기개방)하고, 청자가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지각된 반응)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모형은 Laurenceau, Barrett와 Pietromonaco (1998)의 연구에 의해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 작용에서의 자기개방, 상대방의 개방 수준, 친밀도 등을 일기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 자신의 정보를 개방하고 상대의 반응성과 자기개방을 경험한 것이 친밀감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기개방은 개인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Archer, 1979; Solano, Batten, & Parish, 1982), 자기개방에 대한 의지와 능력의 개인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Mikulincer & Nachshon, 1991). 대인관계 내에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 및 상호작용의 목적이 애착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면, 자기개방 또한 애착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리라 가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Mikulincer와 Nashon(1991)의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이 자기개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정애착인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친밀해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피애착보다 더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대방의 자기개방에 반응적으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정보를 더 많이 개방했고 낮은 자기개방을 하는 상대방보다 높은 자기개방을 하는 상대와 상호작용 하는 것을 선호했다. 회피애착 성향은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하려고 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성향이 높은 이들은 친밀한 자기개방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안애착이나 안정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자기개방을 적게 했으며, 높은 자기개방을 하는 대화 상대를 불편하게 생각했다. 반면 애착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타인과 결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높은 자기개방 행동을 보였다. 이들은 회피애착 성향인 사람들에 비해 자기개방에 대한 의지가 높았으며, 친밀한 자기개방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대에까지 무분별하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문적 도움추구 상황에서 회피애착과 자기개방의 관계를 살펴본 박순주(2010)의 연구에서도 회피애착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개방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자면 애착회피 성향은 자기개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애착불안 성향은 자기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자기개방이 관계의 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애착불안이 자기개방을 높인다는 Mikulincer와 Nashon(1991)의 연구결과는 자기개방이 애착불안과 관계의 질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장면에서 애착성향이 어떻게 자기개방에 영향을 줄 것인지 함께 보고자 한다.

인터넷 사용이 상용화되면서 인터넷 공간이 사회활동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과 구분되는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은 기존의 오프라인 장면에서 연구되었던 대인관계 행동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맥락이 대인관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 의사소통이 오프라인 의사소통과 다른 가장 단적인 예는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시각적인 단서가 제한된다는 것이

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가 전하는 메시지는 텍스트 형식으로만 전달될 뿐 비언어적인 정보는 전달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면대면 의사소통에서보다 즉각적인 대담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개인이 반응을 형성하는 데 있어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다. 즉,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McKenna & Barch, 2000).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특징은 개인으로 하여금 면대면 대인관계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Walther(1996)는 온라인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면대면 상황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수준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게 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온라인 상황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사회적 단서가 제한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주도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고, 실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해서 덜 민감해진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상황에서는 사적인 자신의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면대면 상황에서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온라인 의사소통과 자기개방, 우정의 관계를 살펴본 Valkenburg와 Peter(2007b)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30%가 친밀한 정보를 개방하는 데 온라인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현상은 Tidwell과 Walther(2006)의 연구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서로 모르는 개인들을 온라인에서 만나게 했을 때 참가자들은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더 친밀한 질문과 깊은 수준의 자기개방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이 개인으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게 자기개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기개방을 용이하게 하는 온라인 공간의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Valkenburg와

Peter(2007b)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자기개방이 기존의 친구관계의 질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촉진 가설(stimulation hypothesis)를 제안했다. 청소년 7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호작용과 친구와의 친밀감을 살펴본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친구와 온라인 상호작용하는 것이 친밀감을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보였다. 참가자 중 30%는 친밀한 자기개방을 할 때 온라인이 더 효율적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참가자들보다 기존의 친구들에게 더 큰 친밀감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적 단서가 제한되는 인터넷 공간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자기개방이 상호간의 호감과 신뢰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용자들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자신의 비밀과 사적인 사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러한 자기노출 행동이 친밀감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복 & 황하성, 2007).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에 대한 연구는 개인 성향이 어떻게 자기개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Amichai-Hamburger 등(2002)의 연구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온라인으로 의사소통할 때 좀 더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낸다고 보고했다. 또한 Valkenburg와 Peter(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온라인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면대면 의사소통보다 더 선호하며, 대화의 폭과 깊이를 발전시키는 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애착불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대인관계 행동에 주목해볼 수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애착대상의 부재나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애착대상으로부터의 유기와 거부에 대한 위협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과활성화 정서 조절 전략(hyperactivation affect regulation strategy)을 사

용하게 된다(Lopez & Brennan, 2000; Mikulincer et al., 2003). 애착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애착 대상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시각적 단서들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제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기개방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타인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친밀한 자기개방을 경험하는 것은 애착불안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으로부터 애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Worthy, Gary, & Kahn, 1969). 따라서 이러한 신호가 거부에 대한 공포를 줄여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기개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황에서 면대면 상황에서도보다 더 편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애착성향이 자기개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개방 행동이 관계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를 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함께 알아보려 했다.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Subrahmanyama, Reis와 Waechter 등(2008)의 연구에서는 성인 응답자의 22%가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친구와 면대면으로 만나

는 친구가 100% 일치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적으로 면대면 접촉친구와 온라인 접촉 친구가 49% 정도 겹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대상이 겹치는 것만을 언급했을 뿐 동일한 대한 관계행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는 탐색해보지 않았다. 또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 행동을 다룬 다른 기존의 연구들은 온라인 공간만을 독립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동일한 표본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나, 온라인 행동이 오프라인 대인관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기제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대인관계를 맺는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필연적으로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 행동과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 행동이 함께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면대면 상황과 온라인 상황 각각에서 자기개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기개방, 관계의 질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 및 경로를 갖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자기개방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자기개방이 애착성향과 관계의 질 사이를 매개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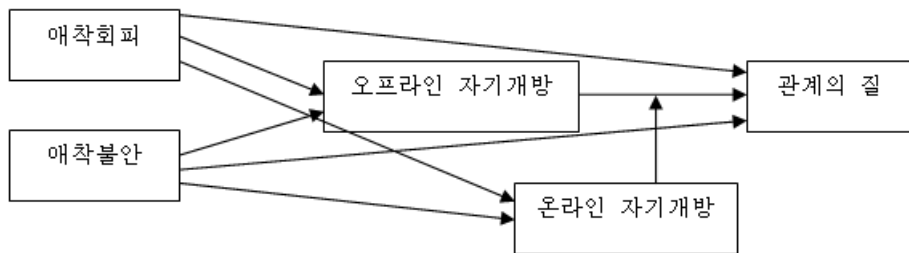


그림 1. 이론적 모형

이에 더해 오프라인에서의 자기 개방 행동과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온라인 대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눈덩이 표집(snow bowling sampling)을 통하여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적 인구분포 비율에 맞춰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20-30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집된 연구 대상자 집단에게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사

람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에 거주 중인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설문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고, 우편으로 설문과 연구동의서를 발송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설문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반송용 봉투에 넣어 연구자에게 발송하였다. 총 1200부의 설문지를 수합하였으나 미응답 문항이 너무 많거나 모든 답을 다 하나로 기입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51부의 설문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20대 593명, 30대 458명으로 총 1,051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7.62세, 표준편차는 5.72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468명(54.6%), 여성 564(44.5%),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가 19명(0.9%)이었다. 혼인 상태는 미혼이 772명(73.55)이고, 기혼이 273명(26%)이었으며, 그 외 사별, 이혼 등의 기타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0.4%)이었다. 그 외 연구 대상자

표 1.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N (%)	구분	N (%)	구분	
학력	대학원 이상	265 (25.2%)	인터넷 사용 기간	1년 미만	2 (0.2%)
	고등학교 졸업	40 (3.8%)		3~5년	14 (1.3%)
	중학교 졸업	4 (0.4%)		5~7년	42 (4%)
	기타	2 (0.2%)		7년 이상	971 (92.4%)
경제 수준	상	15 (1.4%)	인터넷 (SNS) 사용 빈도	하루 중 수시	683 (65%)
	중상	127 (12.1%)		하루에 1회 이상	268 (25.5%)
	중	563 (53.6%)		2~3일에 1회 이상	61 (5.8%)
	중하	281 (26.7%)		1주일에 1회 이상	22 (2.1%)
직업	하	61 (5.8%)	인터넷 (SNS) 사용 시간	한 달에 1회 이상	3 (0.3%)
	학생	483 (46%)		0~1시간	131 (12.5%)
	전문직	233 (22.2%)		1~3시간	486 (46.2%)
	사무직	141 (13.4%)		3~5시간	218 (20.7%)
	서비스직	52 (4.9%)		5~7시간	99 (9.4%)
	전업주부	36 (3.4%)		7~9시간	67 (6.4%)
	기타	44 (4.3%)		10시간 이상	34 (3.2%)
	무직	27 (2.6%)			

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인터넷 매체 유형별 사용 강도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표 2에 각각 제시하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 자기개방의 폭과 깊이,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기개방의 폭과 깊이,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설문에서는 응답자들은 아주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접촉/대화에 대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 애착 유형(*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 외(2000)이 개발한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CR-R)을 김성현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박지선(2008)이 청소년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문항(문항예: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은 애착 회피를 측정하고, 18문항(문항예: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은 애착 불안을 측정한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애착 회피와 애착 불안 각각에서 18-12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차원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이다.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 모두에서 점수가 낮은 개인은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1, .83이었다.

#### 관계의 질(*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척도를 한중혜(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소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의, 대립, 조력, 만족, 친밀, 보살피기, 애정, 인정, 결속력'의 9개 소항

목을 사용하였다. 각 소항목은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들은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의 질을 경험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얼마나 만족스러워 합니까?'). 원 문항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점='전혀'부터 4점='매우 많이'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 자기개방(*Perceived breadth and depth of online communication*)

Peter와 Valkenburg(2006)가 인터넷 상황에서의 자기개방의 폭과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질문지를 번안한 것으로, 총 9개의 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면대면 상황에서의 자기개방도 함께 묻기 위해 인터넷 상황이라고 제시된 본 척도의 문항에서 '인터넷 상황'이라는 조건을 빼고 사용하였다.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은 지각된 관심폭(perceived breadth)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며(문항예: '다양한 주제를 쉽게 이야기 한다,' '새로운 정보를 듣는다.'). 5번부터 9번까지의 문항은 관계의 깊이(depth of online communication)를 측정하는 문항(문항예: '비밀을 쉽게 이야기 한다,' '내적 감정을 쉽게 이야기 한다.')으로 되어있다.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은 1점(전혀)부터 4점(매우)까지이며, 점수분포는 9점에서 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넓고 깊은 수준의 자기개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고, 자기개방의 폭과 깊이를 묻는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3, .88으로 나타났다.

#### 결 과

주요 분석에 앞서 연구 변인들간 성차가 존



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애착회피, 애착불안, 온라인 자기개방, 관계의 질 변인들 모두에 있어 유의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2). 따라서 이후의 모든 분석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였다.

#### 주요 변인 간 상관

표 2에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애착회피는 온라인 자기개방, 오프라인 자기개방, 그리고 관계의 질과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애착불안은 온라인 자기개방과 정적 상관이 유의했으며 관계의 질과는 부적 상관이 유의했고, 오프라인 자기개방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프라인 자기개방 모두 관계의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연구모형 적합도

본 연구에서 가정된 경로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NFI, TLI, CFI를 사용하였다. NFI, TLI, CFI 경우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 RMSEA는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적절한 수준의 범위

의 해당하여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내었다.  $\chi^2 = 5.717(df=2)$ ,  $p = .057$ , NFI=.993, TLI=.954, CFI=.996, RMSEA=.042.

####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애착불안, 애착회피,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방, 관계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모형에서 가정한 경로들의 경로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것과 같이 애착회피는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애착불안은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관계의 질로 가는 직접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이 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애착불안이 관계의 질로 가는 직접 경로는 부적이었으나 자기개방을 거쳐 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이 관계의 질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의해 지지된 경로모형에서 애착불안과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방, 애착회피와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의 공식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애착회피와 관계의 질 사이에 온라

표 2. 주요변인들 상관관계

	1.	2.	3.	4.	5.
1. 애착회피	1				
2. 애착불안	.50**	1			
3. 온라인 자기개방	-.15**	.07*	1		
4. 오프라인 자기개방	-.23**	-.04	.36**	1	
5. 관계의 질	-.28**	-.15**	.33**	.44**	1

\* $p < .05$ . \*\* $p < .01$ .

표 3. 경로계수 및 표준화계수

		B	$\beta$	S.E	t
애착회피	→ 온라인 자기개방	-.116	-.254	.016	-7.191***
애착회피	→ 오프라인 자기개방	-.124	-.291	.015	-8.196***
애착불안	→ 온라인 자기개방	.072	.208	.012	5.911***
애착불안	→ 오프라인 자기개방	.038	.118	.012	3.338***
온라인 자기개방	→ 관계의 질	.412	.222	.055	7.444***
오프라인 자기개방	→ 관계의 질	.680	.344	.059	11.570***
온라인 자기개방*오프라인 자기개방	→ 관계의 질	-1.152	-.136	.236	-4.879***
애착회피	→ 관계의 질	-.095	-.113	.028	-3.413***
애착불안	→ 관계의 질	-.065	-.101	.021	-3.146**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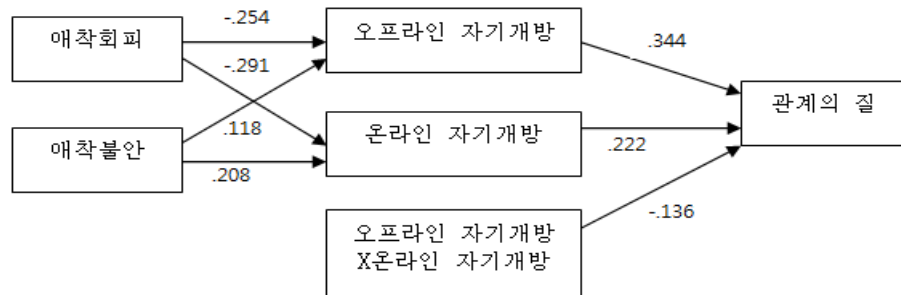


그림 2. 통계적 모형

표 4. 간접경로 유의미성 검증결과 Sobel test

				간접효과	Sobel test Z	
애착회피	→	온라인 자기개방	→	관계의 질	-.065	5.17**
애착회피	→	오프라인 자기개방	→	관계의 질	-.085	6.69***
애착불안	→	온라인 자기개방	→	관계의 질	.046	5.26**
애착불안	→	오프라인 자기개방	→	관계의 질	.041	3.05**

\*\*  $p < .01$ . \*\*\*  $p < .001$ .

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Z_{ab}=5.172$ ,  $p < .01$ 와 오프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Z_{ab}=6.69$ ,  $p < .001$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관계의 질

의 관계에서도 온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Z_{ab}=5.264$ ,  $p < .01$ 와 오프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Z_{ab}=3.046$ ,  $p < .01$ ,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표 5. 비제약모형과 경로제약모형의 비교

Model	NpAR	CMIN	DF	TLI	CFI	RMSEA	모형비교	
비제약모형	25	5.717	2	0.954	0.996	0.042	$\Delta DF$	$\Delta \chi^2$
경로제약모형	24	11.692	3	0.928	0.99	0.053	1	5.975**

다(표 4).

또 애착불안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로를 비교한 결과, 애착 불안이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로를 고정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따라서 애착불안이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로가 같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두 경로 간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애착불안은 오프라인 자기개방 보다 온라인의 자기개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애착불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더 자기개방을 많이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한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기개방을 거쳐 관계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

과를 살펴보았을 때도, 애착회피의 경우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관계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도 부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착불안의 경우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지만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불안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에서는 두 효과가 서로 상쇄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질에 대한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와서 이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개변수인 오프라인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영향을 줄 때 온라인 자기개방이 조절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 양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경우에 친밀감

표 6. 효과분해표

		애착불안 합계	애착회피 합계	관계유지 상호작용	오프라인 자기개방 합계	온라인 자기개방 합계
표준화 총효과	오프라인 자기개방 합계	.11	-.29	-	-	-
	온라인 자기개방 합계	.20	-.26	-	-	-
	관계의 질	-.01	-.27	-.10	.34	.21
표준화 직접효과	오프라인 자기개방 합계	.11	-.29	-	-	-
	온라인 자기개방 합계	.20	-.26	-	-	-
	관계의 질	-.09	-.12	-.10	.34	.21
표준화 간접효과	오프라인 자기개방 합계	-	-	-	-	-
	온라인 자기개방 합계	-	-	-	-	-
	관계의 질	.08	-.1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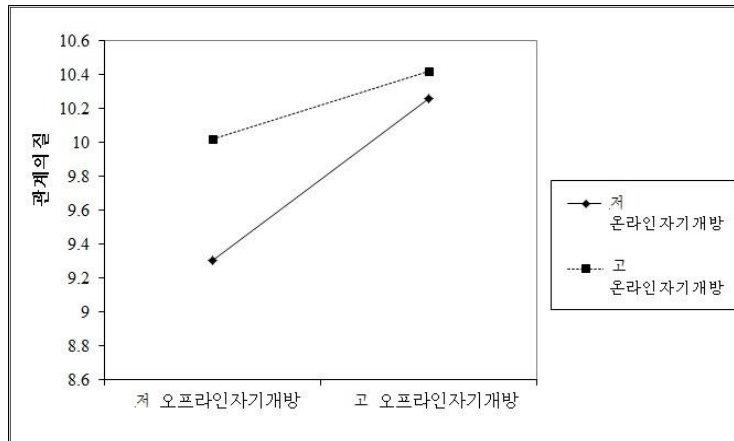


그림 2. 관계의 질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에서 온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 효과

수준이 가장 높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자기개방을 적게 하는 경우에 친밀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오프라인에서 자기개방을 적게 할 때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을 하면 친밀감이 증가했다. 즉, 오프라인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할 때는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오프라인에서 자기개방이 낮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것이 친밀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자기개방을 매개하여 관계의 질에 이르는 경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맥락을 함께 고려해서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와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관계의 질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애착성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을 거쳐 관계의 질에 이르는 경로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Mikulincer와 Nashon(199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애착성향에 따라 자기개방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애착

회피 성향이 강해질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자기개방을 덜 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애착불안은 강해질수록 자기개방을 증진시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애착성향에 따른 자기개방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은 온라인 공간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였던 개인의 행동패턴이 온라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처음에 가정했던 것과 같이 자기개방은 애착과 관계의 질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애착회피 성향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애착불안의 경우 애착불안이 관계의 질로 가는 직접 경로는 부적이었으나, 자기개방을 거쳐 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 성향 그 자체로는 관계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기개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에는 오히려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 자기개방과 관계의 질이라는 밀접한 상관을 가지는 두 변인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애착불안에 대한 기존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애착불안이 관계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e.g. 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Stackert & Bursik, 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애착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을 타인과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 해소하고자 증가된 자기개방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도 일치한다(Mikulincer & Nachshon, 1991; Wei et al., 2005). 지금까지 애착과 자기개방, 애착과 관계의 질을 각각 다룬 연구만 있었을 뿐 이 셋을 함께 보는 연구는 드물었다. 애착과 관계의 질을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애착불안은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Anders & Tucker, 2000; Keelan et al., 1998; Tidwell, Reis, & Shaver, 1996).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애착불안 성향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상대에게 표현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 자기개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대인관계 맥락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성향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였던 개인의 특성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애착불안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이 애착불안 성향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편하게 자기개방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인 단서가 제한되는 온라인 상황에서는 상대가 비추는 부정적인 단서를 지각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착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면대면 접촉 상황에 비해 더 편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을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고 더 편하게 자기개방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Amichai-Hamburger et al., 2002; Valkenburg & Peter, 2007b).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맥락에 따라 자기개방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개인 변인이 존재한다는 것과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개인변인이 관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은 애착불안 성향이 있는 개인의 과활성화 조절 전략이 활성화 되는 것을 완화시키고,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이 애착불안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밀한 사람들과 좀 더 편하게 자기 자신의 사적인 정보와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대안적인 사교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인관계가 중복되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인관계 행동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은 관계의 질에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면대면 상황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경우 관계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기개방과 친밀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 즉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관계의 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프라인 자기개방의 수준이 동일할 때,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계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자기개방을 하는 것이 기존의 대인관계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촉진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Pornsakulvanich, Haridakis, & Rubin, 2008; Valkenburg & Peter, 2007b). 결국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인터넷이 자기개방

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매체로 활용되어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오프라인에서 높은 자기개방을 보일 때보다 낮은 자기개방을 보일 때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에 따라 관계의 질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사회보상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면대면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온라인을 자기개방의 도구로 사용할 때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촉진가설이나 사회보상가설을 다뤘던 연구들은 면대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온라인 자기개방이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만 가지고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오프라인에서의 자기개방 행동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방이라는 하나의 관계행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맥락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온라인 대인관계 행동이 오프라인 대인관계 행동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관계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로, 온라인에서의 지각된 반응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자기개방과 친밀감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자기개방 행동과 함께 이에 대해 상대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친밀감 증진으로 연결된다고 한다(Reis & Shaver, 1988). 특히 면대면 의사소통에서는 상대방에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자신에게 반응한다고 지각되는 반면 온라인 의사소통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지각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중요한 부분이다. 즉, 자기개방을 했을 때 상대가 얼마나 적절히 반응해주느냐에 따라 이후의 추가적인 자기개방 행동이 일어날지를 결정하고 관계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 행동과 함께 상대의 반응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온라인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애착불안이 자기개방을 촉진하는 동기로 작용할 때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의 장기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일시적으로는 애착불안 성향이 자기개방을 증가시켜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없었다. 애착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자기개방이 때로 부적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Mikulincer & Noshon, 1991) 고려했을 때 애착불안 성향이 촉진시킨 자기개방이 관계의 질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기개방 행동이 개인의 성향과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맥락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가정하고 진행되었다. 자기개방이 일어나는 맥락과 개인의 성향은 혼재되어 서로 상호작용할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 개인요인과 맥락요인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표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눈덩이 표집으로 인하여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 중 대부분이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는 연령대인 20~30대에 몰려있고, 최종학력도 대졸 이상이 95%에 육박하여 본 연구 결과가 성인 전반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들은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을 하는 매체(예를 들어, 일대일 채팅인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기, 자기개방을 하는 목적 등도 온라인에서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Blais, Craig, Pepler, & Connolly, 2008; Pornsakulvanich, Haridakis, & Rubin, 200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들까지 통합해서 고려한다면 개인 성향이 온라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애착불안 성향이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 온라인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변인을 탐색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인관계 행동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인터넷 사용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연구가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면에만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연구는 온라인 공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에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만약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대인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애착성향에 따라 자기개방이 달라지고 이것이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앞으로 상담 장면에서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를 보이는 내담자들의 대인관계를 돕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애착불안 성향이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개방을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따라 대인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적 단서가 제한되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덜 자극되는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대인관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상담 장면에서도 자신의 정보를 상담자에게 더 솔직하게 개방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 빨리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반면 애착회피를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개방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루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또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을 상담자에게 표현하고 개방하는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애착성향이 상담자와의 관계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기개방 행동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좀 더 나은 대인관계를 이루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행동의 근간을 형성하는 애착이라는 개인 변인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살펴봤으며,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 행동이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이 상호작용 하는 방식이 다른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행동이 각각 그리고 함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선주 (2010).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추구의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복, & 황하성 (2007).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노출, 친밀감, 공동 공간감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1(6), 469-494.
- 박수호 (2012). 인터넷 열풍과 대인관계의 변화. 사회와 이론, 20, 401-430.
-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중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9).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Amichai-Hamburger, Y., Wainapel, G., & Fox, S. (2002). "On the Internet No One Knows I'm an Introvert": Extroversion, Neuroticism, and Internet Intera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5, 125-128.
- Anders, S. L., & Tucker, J. S. (2000). Adult attachment styl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Personal Relationships*, 7, 379-389.
- Archer, R. L. (1979). Role of personality and the social situation. *Self-disclosure*, 28-58.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lais, J. J., Craig, W. M., Pepler, D., & Connolly, J. (2008). Adolescents online: The importance of Internet activity choices to salient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522-536.
- Bowlby, J. (1953).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London: Penguin Books.
- Bowlby, J. (1976).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 2): United State: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46-76). New York: Guildford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erlega, V. J., & Berg, J. H. (Eds.). (1987). *Self-disclosur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Springer.
- Derlega, V. J., & Grzelak, J. (1979). Appropriateness of self-disclosure. *Self-disclosure: Origins, patterns, and implications of open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51-176.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
- Gemmill, E., & Peterson, M. (2006). Technology use among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for student affairs professionals. *NASPA Journal*, 43, 280-300.
- Gross, E. F. (2004). Adolescent Internet use: What we expect, what teens repor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633-649.
- Keelan, J. P. R., Dion, K. K., & Dion, K. L. (1998). Attachment styl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est of a self-disclosure explan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30, 24.
-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 Crawford, A.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58, 49-74.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Pietromonaco, P. R. (199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the importance of self-disclosure, partner



- disclosure, and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personal ex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38.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
- Manne, S., Ostroff, J., Rini, C., Fox, K., Goldstein, L., & Grana, G. (2004).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the role of self-disclosure, partner disclosure, an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actions between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partn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589.
- Mikulincer, M. (1998).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the sense of trust: An exploration of interaction goals and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09.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21.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Morahan-Martin, J., & Schumacher, P. (2003). Loneliness and social uses of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9, 659-671.
- Peter, J., & Valkenburg, P. M. (2006). Research note: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Internet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1, 213-226.
- Pornsakulvanich, V., Haridakis, P., & Rubin, A. M. (2008). The influence of dispositions and Internet motivation on online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close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 2292-2310.
- Rabby, M. K. (2007). Relational maintenance and the influence of commitment in online and offline relationships. *Communication Studies*, 58, 315-337.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 Solano, C. H, Batten, P. G., & Parish, E. A. (1982). Lonelines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24.
- Sprecher, S., & Hendrick, S. S. (2004). Self-disclosure in intimate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individual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ver ti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857-877.
- Stackert, R. A., & Bursik, K.. (2003). Why am I unsatisfied? Adult attachment style, gendered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and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419 -1429.
- Subrahmanyam, K., & Greenfield, P. (2008). Onlin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relationships. *The Future of Children*, 18, 119 -146.
- Subrahmanyam, K., Reich, S. M, Waechter, N., & Espinoza, G. (2008). Online and offline social network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by emerging adul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20-433.
- Tidwell, L. C., & Walther, J. B. (2006).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effects on disclosure, impressions, and interpersonal evaluations: Getting to know one another a bit at a tim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 317-348.
- Tidwell, M. O, Reis, H. T., & Shaver, P. R. (1996). Attachment, attractiveness, and social interaction: a diary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29.
- Valkenburg, P. M., & Peter, J. (2007a). Onlin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Well Being: Testing the Stimulation Versus the Displacement Hypothesi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 Communication*, 12, 1169-1182.
- Valkenburg, P. M., & Peter, J. (2007b).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online communication and their closeness to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267.
- Walther, J. B. (1996).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mpersonal, interpersonal, and hyperperson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3, 3-43.
-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602.
- Worthy, M., Gary, A. L., & Kahn, G. M. (1969). Self-disclosure as an exchang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59.
- Wright, K. B. (2004). On line relational maintenance strategies and perceptions of partners within exclusively internet based and primarily internet based relationships. *Communication Studies*, 55, 239-253.
- 1 차원고접수 : 2013. 04. 14.  
수정원고접수 : 2013. 05. 24.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5.

## **How attachment style affects relational quality?: The interaction effects of online and offline self-disclosure**

**Seo Hyeon Lee**

**Eun Joo Yang**

**Jung Hye Kwon**

Korea University

The emergence of Internet introduces a new social space for building and developing relationship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in offline and online spa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the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moderating role of self-disclosure in online space in influencing the medi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we hypothesized a path model in which online/offline self-disclosure mediated attachment styles and the relationship quality. In addition, the model included the interacting effects of online and offline self-disclosures on the relational quality. A total of 1051 participants (males 44.5%, females 54.6%, unspecified 0.09%) were included with an age range between 20 and 39.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styles, perceived breadth and depth of online and offlin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quality. Results supported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disclosures in offline and online spa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the relational quality. path coefficients of avoidant attachment style with both online and offline self-disclosures were negative, while path coefficients of anxiety attachment style with both self-disclosures were positiv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style and online self-disclosure was stronger than that between anxiety style and offline self-disclosure.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online self-disclos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ffline self-disclosure and the relationship quality was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online, offline, self-disclosure, relational quality